

있읍니다. 五月二日 아침 十一시 台北을 떠나 午後 三時 日本 大阪에 도착하여 奈良으로 直行하였읍니다. 五月三日에는 奈良博物館(刺繡佛教美術展) ↓ 依水園(宋과 高麗陶磁器展) ↓ 大和文華館(日本近代繪畫展)을 順次로 들었으며 四日에는 다시 大阪에서 京都大學의 「第三次이란·아후가니스탄·파키스탄 調査報告會」에 參席할 수 있었으며 講演이 끝난 다음 水野精一 教授一行 四·五人과 부근의 다방을 찾아 우리나라 佛教美術을 이야기하였읍니다. 五日에는 京都에서 梅原 有光 兩教授를 만날 수 있었고 每月二回 公開하는 有隣館을 찾아 中國石像을 다시 대하기도 하였읍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東京行 航空便의 出發時間을 이용하여 大阪 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藤澤氏를 訪問하여 우리나라 扶餘에서 結婚하였다는 그들 夫妻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읍니다. 六일부터 八일까지의 三日間 東京에서는 上野에서 開催중인 關東亞展이 기억을 새롭게 하였으며 東京藝大의 松本榮一 教授와 中吉功氏, 同窓인 印翹煥氏 金大鉉君 등과의 再會를 즐기도 하였읍니다. 五月九日 CAT의 ジェット機便으로 十時넘어 金浦空港에 나섰읍니다. 五個月만에 對하는 山川과 서울의 거리는 虛脫과 窮相이 뚜렷하였읍니다. 혼자서 집에 돌아와 自身과 家族의 無事함을 고맙게 생각하였으며 同人과의 再會를 반가워 하였읍니다(完)

〔訂正〕 前號(四一八) ねがひ紀行에 添附된 寫眞(上)은 廢塔(짜이부리 보안탄)이 었기 訂正합니다(三四頁上段十三行)

石窟庵通信(十二)

鄭 明 鎬

一、工事關係

1. 二重窟

二重窟 콘크리트 施工이 本格的으로 進行中이다. 窟背 後로부터 延長되는 排水路暗渠 配筋架設을 東北部로부터 始作(8/4). 窟의 基礎配筋은 東北(8/9) 南西(8/2)에서 着手되어 콘크리트 壁體進行. 窟 뒤의 岩盤 上面에는 階段基礎가 마련되고 있으며 동시에 穹窿形의 堰枠를 架設中이다(8/27). 前室아치 위의 石築을 除去키 위하여 補強用木造架構를 세웠다(8/23).

2. 前室

第四卷 第十號 通卷三十九號

前室의 平面과 樣式은 確定되었었다. 單層판각지붕의 正面三間 側面二間이며 樣式은 現存最古遺構에서 採擇하고 拱包部分과 門扉만은 新羅石造遺構 特히 佛國寺와 石窟 自體에서 본따기로 하였다. 屋蓋는 羅代의 手法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九月一日부터 製材를 進行하고 있다. 이 期間中 十分之一의 前室模型이 完成되었으며 또 前室과 窟과의 調整도 決定되었었다.

二、環境整理 設計

窟과 前室工事が 進展함에 따라 石窟庵 周邊 地形模型이 作成되고(8/12) 새로운 設計案에 着手하였다(8/28).

三、調査關係

(1) 콘크리트 施工에 따르는 配合과 強度實驗을 嶺南國土建設局에 依頼. 蓋瓦 注文을 위하여 蔚山과 경주 乾川工場의 施設과 土質 등을 調査(柳海宗)하였고 既成品의 強度와 含水度를 實驗하였다.

(2) 8/8 佛國寺(아치 石築 檐遮 柱頭) ↓ 嶺項里寺址塔(門扉) 8/10 高仙寺址塔(門扉)(金光洙 申榮秀) 8/28 九政里方形古墳(門扉及 石築)

(3) 壽光殿으로 올라가는 階段에서 心枋石片(8/13)發見. 前室入口 左右의 檐遮石에서 中間空을 끼었던 彫刻手法이 새로이 調査되었었다(8/16).

(4) 오래동안 行方을 찾고 있던 縣板「石窟重修上棟文」(本誌 資料 參照)이 庵子北方 便所 板壁에서 發見되었는데 頭尾가 切斷되어 있었다(露出된 東面).

四、人事往來

8/9 文化財委員 金岸基 李弘植 李相伯 金元龍 鄭文化財管理局長 金道教育局長 一行 8/19 鄭永鎬 8/26 文化財委員 金載元 李敏載 9/1 國博 金正基 張南植 金錫淳 慶北博 尹容鎮 安東郡廳 安承一

第四卷 第十號 通卷三十九號

永同新項里三尊佛石像

秦 弘 燮

永同郡 龍山面에 三尊石像이 있다는 말을 들은지는 오랫동안이나 今年 八



左二三cm의 四角形板石前面에 浮刻되었다.

本尊은 剃髮이며 肉髻는 比較的 적은 便이고 面相은 豐滿하다. 눈은 正眼正視, 口唇이나 턱은 瑞山 泰安磨崖佛과 類似하다. 兩耳는 짧고 頸部가 긴 편인데 三道가 보이지 않는다. 兩肩은 넓게 가로 퍼졌고 法衣는 通肩이고 手印은 左手는 與願印 右手는 腹前에서 內掌하고 있다. 衣文은 左手 밑에서 넓은 幅으로 한가닥 衣端이 내러지고 다시 左手 밑에서 右下部로 斜線을 그리며 陰刻線이 三條있어 옷주름을 表示하였고 下端은 턱이 저서 水平으로 굽어져 있다. 大體로 두꺼워서 肉體의 表現은 全然無視되었다. 左脇侍菩薩은 三面冠을 썼고 面相豐滿하나 若干 긴 얼굴이다 胸前에 짧은 瓔珞이 드리워 있고 두 손으로는 쿠엇을 들고 있는 듯한 데 똑똑하지 않다.

右脇侍菩薩의 面相이나 胸前의 瓔珞은 左脇侍나 같은데 두 손은 앞에 모아 合掌하고 있다. 兩脇侍菩薩의 衣紋은 매우 稀微하여 刻線이 明瞭하지 않다. 다만 두꺼운 法衣나 그 下端이 水平으로 굽어져 있는 點은 本尊과 같다.

光背는 三尊 모두 頭光 뿐인데 本尊은 圓形이고 兩脇侍는 寶珠形이다. 本尊頭光은 二重圓으로 內圓에는 蓮花文이 있고 外圓에는 小圓이 陽刻 連續되어 連珠文을 擴大한 것 같다. 脇侍菩薩의 光背안에는 文樣이 있는

月에야 現地를 調査할 機會가 있었다. 龍山 장터에서 앞은 고개 하나를 넘으면 新項里部 落이 되는데 三尊石像은 部 落入口 約 三m되는 언덕에 南向하고 서 있는데 높이 二·二八m 幅 一·六m 厚 向右 一〇cm, 向

듯이 보이나 刻線이 不分明하다. 한 가지 注意되는 것은 兩脇侍 上部空 間에도 彫刻이 있는 듯이 보여지는 點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하 지 않으나 或 飛天 或은 化佛이나 아닌가도 생각된다.

前面 右脇侍 上部에 板石 右端에서 本尊光背에 이르는 長 四〇cm, 幅 六cm 深 三cm의 凹線이 있고 板石 後面에도 現 地面에서 八五cm 높이에 가로 長 一四六cm의 陰刻線 二條를 幅 八cm의 사이를 두고 파았으나 이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 나라에 石造三尊像이 많다고 할 수 없는 데 이 三尊像은 그 中에 서도 比較的 高古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面相, 衣紋處理, 手印, 光背文 樣等 오랜 樣式을 보이고 있어 그 製作年代가 八世紀以後로 떨어지지 는 않을 것 같다. 지금 板石 下部가 埋沒되어 足部나 臺石의 有無等을 알 수 없으나 埋沒된 部分의 發掘과 同時에 保存對策이 必要할까 한다.

實測値는

	身高	頭高	肩幅	頭光徑
本尊	一九六cm	四三cm	六〇cm	八二cm
左脇侍	一三六cm	三一·五cm	三三cm	四四·五cm(高)
右脇侍	一四八cm	三一cm	三三cm	四四cm(高)

懷德의 雙淸堂

李 殷 昌

忠淸南道 大德郡 懷德面 宋村里 白達洞 雙淸堂은 朝鮮初 縣人 宋愷가 建立한 건물로 現在 十九代宗孫 宋寅昌氏가 守護하고 있는 바 調査할 機會가 있어 그 概略을 紹介하고자 한다.

二

自然石을 若干 加工한 長方形 石材를 積쳐놓아 낮은 築臺를 이 루고 그 위에 方形礎石(後面 西北隅礎石은 二重圓形)을 놓고 方柱를 세